

지역 소식통

정읍 VR·AR 체험박람회
코로나19 영향 전면 취소

정읍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오는 10월 예정된 '2020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와 문화예술행사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가운데 시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 판단, 박람회를 전면 취소하고 내년을 기약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박람회는 체험장소가 실내인 만큼 불특정 다수의 실내 공간 밀집이 예상돼 축제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에 따르면 2020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었다.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른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첨단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지난해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는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라는 평을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을에 국화빛 축제 취소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관광객 및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10회 부안 가을에 국화빛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개최됐던 부안 가을에 국화빛 축제는 화려한 LED 조명과 함께 다양한 국화 조형물, 수준 높은 분재작 등 2만여점의 국화작품을 선보이며 부안을 찾는 관광객과 부안군민들에게 큰 사랑과 호응을 받아왔다.

코로나19 확산과 축제취소 등으로 화해능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해능가의 소득안정을 돕고 군민들의 정서적 함양을 고려해 축제를 준비하며 재배해 온 다문대작, 입국작, 조형작 등을 수생정원에 전시하고 가든법은 각 읍·면과 실·과·소에 분양해 조경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복지 도시로 우뚝

차별과 소외 없는 시민 모두 누리는 포용복지 강화

민선 7기 정읍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 정책을 펼쳐며 으뜸 복지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시는 2020년 사회복지 신규사업으로 복지서비스가 스며들지 않는 복지 사

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엔젤 복지 통신원 제도'를 도입해 추진해 왔다.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배원과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등으로 구성된 '복지 통신원' 1,004명을 모집해 인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해 교통 불편을 해소했고, 1,200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대학교 신입생 장학

금과 구직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실직·휴폐업·채납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민선 7기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해 현재 4,5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중이며, 기초연금도 2만4,550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길러 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활근로사업'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9억원의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활사업과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통해 신규 사업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명의 가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2년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역동적인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 도시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진은 정읍 참좋은 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 어르신들 필순잔치.

고창에 전봉준 장군 동상 세운다

건립추진위 창립총회… 내년까지 군민 성금 모금

동학농민혁명의 첫 횃불이 타올랐던 고창에 군민 성금으로 만든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건립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5층 회의실에서 기관사회단체, 농민단체, 여성단체, 예술단체, 종교계, 재외군민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모여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창립총회를 열었다.

공동위원장으로 유기상 고창군수, 진운식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장남기 유족회 고문이 선출됐다.

전북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다. 역압 받고 학대받던 민초들이 마음을 함께 해 보국인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아 '무장포고문'을 선포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봉준 장군 관련 시설

물이 없어 아쉬움이 컸다.

이에 고창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봉준 장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동학농민 성지 의향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을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앞으로 기부금 모집 단체 등록을 마치고 내년까지 군민 성금을 모금한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상 디자인, 설치수량, 설치 위치 등을 결정해 2022년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8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동상 제막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막걸리 특화 거리 조성 팔견어

정읍시가 막걸리 특화 거리를 조성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 막걸리의 전국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역 막걸리를 정읍 대표 먹거리로 특화하고 막걸리 특화 거리를 정읍시의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28일 생양동

답곡마을에 위치한 전통 누룩과 가양주, 발효 식초 등을 생산, 연구하는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막걸리 특화 거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통발효 누룩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재료만을 선별해 전통방식으로 전통주

와 발효 식초를 생산하는 생산시설과 발효실, 교양장 등을 둘러봤다.

현장에서 한영석 대표에게 전통 발효식품과 막걸리에 관련한 의견과 특화 거리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또, 가양주와 식초, 누룩 등을 시음해 보고 지역 막걸리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설명 들었다.

이와 함께, 시와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산란계농가에 파각검사기, 난세척기 등을 도입해 노동력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 축산 농가 경쟁력 UP

고창군, 사업비 추가 확보… 산란계농가 첨단장비 도입 등

#고창군 고수면의 한 산란계 농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에 설치된 차량소독기를 꼭 거쳐야 한다. 질병에 취약한 가금의 안전을 위해서다.

2020년 ICT융복합확산사업을 통해 설치한 스마트한 차량소독기는 소독 뿐 아니라 방문하는 차량을 모두 기록하고 저장한다. 농장안에서는 난선별기가 산란계들이 낳은 계란의 혈반 및 파각을 검사하고 계란의 이물질 제거해주는 세척과정까지 거쳐 노동력 절감은 물론 기존보다 품질 좋은 계란을 생산해 낸다.

앞서 고창군은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축산농가의 ICT융복합 확산사업의 높은 관심도를 설명하며 설득작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전북도내 축산분야 ICT융복합 전체사업비 180억원 중 고창군이 48억원(27%)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란계 농가에 파각검사기, 난세척기 등을 도입해 노동력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고 있다.

고창군 산란계 농장 대표는 "차량소독기가 방문차량을 모두 기록, 소독해 주고 선별기를 통한 혈반·파각검사로 품질 좋고 깨끗한 계란을 생산해 내고 있다"며 "유통업체의 불만이 줄고 좋은 계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ICT융복합 스마트 축산으로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환경도 개선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고창군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대표홈페이지로는 최초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과 모바일 환경을 모두 반영한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 한눈에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플러그인 제거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고창군 홈페이지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24개 검사항목에 대한 전문가 심사에서 종합준수율 100%(95% 이상시 합격)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용자 심사를 통한 시각·뇌병변 장애 등 모든 장애 유형 준수율도 100% 성공해 합격점을 받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느 누구나 불편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 한눈에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